

영광군, 제64회 한국민속예술제 개최...전국 민속예술 모여 축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전 라남도(도지사 김영록), 영광군(군수 강종만)이 주최하고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사장 김삼진)과 한국민속예술제 추진위원회(위원장 강등학)가 주관하는 '제64회 한국민속예술제'가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영광군 영광스포티움에서 개최된다.

올해 64회를 맞이한 한국민속예술제는 195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10주년을 기리기 위해 '전국민속예

술경연대회'라는 명칭으로 시작돼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이번 '제64회 한국민속예술제'는 일반부 18개, 청소년부 7개 단체가 각 지역 경선을 통해 올라와 대통령상을 두고 경쟁을 벌이며, 25개 단체의 참가자가 한자리에 모여 민속예술을 겨루는 풍성하고 화려한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속예술 경연뿐 아니라 전야제와 체험행사, 전년도 대통령상 수상단체인 '사)전라우수영들소리'를

비롯해 '유희스카와 신승태', '연희점주리'가 펼치는 초청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경연장을 찾은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전야제는 9월 22일 저녁 7시부터 영광군 법성포 구에서 행복과 풍어를 비는 용왕제, 벽사안민 띠뱃놀이, 불꽃놀이 등이 펼쳐져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가을밤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속예술 체험, 한복 입기 체험, 사물놀이 배우기 등 다양한 체험행

사도 마련돼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담당자는 "한국민속예술제가 우리 전통예술의 우수성과 지역예술의 다양성을 많은 국민이 즐기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국민속예술제는 무료로 관람 가능하며, 상세정보는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누리집(www.kotpa.org)과 한국민속예술제 누리집(www.kfaf.or.kr/2023/)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경률 기자

나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추가 선정 떡세트·배즙·배살빵·온곡쉐이크 등 4종 추가

나주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에 떡종합세트, 파우치형 나주배즙, 나주배살빵, 온곡쉐이크 등 풍성한 답례품이 더해졌다.

시는 추석 대명절을 앞두고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시 제공되는 답례품 4개 품목을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나주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은 농축수산물 15건, 가공식품 13건, 생활용품 12건, 관광서비스 4건, 지역상품권 2건 총 46건으로 구성돼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금의 30% 만큼 답례품 포인트를 제공하기 때문에, 나주시는 최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0만 원 기부를 염두에 두고 3만 원으로 구성된 답례품을 준비했다. 추가 선정한 답례품 또한 3만 원 상당의 품목들로 구성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바

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이다"며 "지역에 기부도 하고, 연말정산 혜택도 받고, 새롭게 추가된 답례품도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나주만의 특별한 답례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나주시는 올해 모인 기부금을 활용해, 내년부터 가치 있고 소중한 기금 사업으로 시민들에게 보답할 예정이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하는 주소지 이외 지역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모아 지역소멸 대응, 주민복지 등에 사용하는 제도다.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과 지역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세액공제 금액은 10만 원까지는 100%, 10만 원 초과분은 최대 500만 원까지 16.5%다. /김동철 기자

담양, 배움의 가치 나누는 여성농업인역량 강화 교육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9월 18일부터 10월 19일까지 담양의 가치를 빛내줄 여성농업인 미래지도자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전문교육을 추진한다.

이 교육은 농촌 여성의 다양한 분야의 능력 개발을 통해 잠재력을 일깨워 주고, 독립된 농업경영인으로서 역할을 할기차게 수행해 행복한 농촌생활을 영위하도록 3과정의 교육을 각 5회 30명씩, 총 15회 9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교육은 농작업 매듭활용교육, 탄소중립 실천교육, 농산물 가공교육으로 구성됐다.

농작업 매듭활용교육에서는 시설 하우스 재해예방을 위한 밭줄 매듭, 과채류 유인 매듭, 생존매듭 등을 교육한다.

탄소중립 실천 생활기술교육은 천연재료를 이용해 환경오염을 줄이는 생활용품을 만들어 사용하는 방법을 교육한다.

농산물 가공교육은 담양의 주 생산물인 쌀, 딸기, 블루베리, 방울토마토를 이용한 가공식품 교육으로 채웠다.

담양군 관계자는 "여성농업인들이 실생활에서 실천하고, 보급할 수 있는 생활기술 교육을 통해 행복한 농촌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장진성 기자



장성군이 이달 25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고향사랑기부사업' 후보사업에 대한 군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고향사랑기부사업은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을 활용해 군민 복지 증진, 취약주민 지원 등을 도모하는 사업을 말한다. /장성군 제공

장성군, '고향사랑기부사업' 군민 설문조사

장성군이 이달 25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고향사랑기부사업' 후보사업에 대한 군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고향사랑기부사업은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을 활용해 군민 복지 증진, 취약주민 지원 등을 도모하는 사업을 말한다.

군은 앞선 6월 기금사업 제안 공모 추진에 이어 8월 기금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해 공익성, 수혜 범위,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심층 검토했다.

이 가운데 공모 선정작 3건과 자체 발굴 3건을 전라남도에서 자문 의뢰해 △119생명팔찌 보급 △육아용품 대여 및 장난감 은행 설치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향토 문화유산 소규모 수선·보수 4건을 군민 설문조사 대상으로 확정했다. /유광종 기자

장성군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향사랑기부사업추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사업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연간 500만 원 한도로 주소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는 제도이다. /유광종 기자

화순군,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계룡리슈빌서 진행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최근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계룡리슈빌 정문에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화순팍을 홍보했다.

이번 직거래장터는 농특산물에서 신선한 지역 농축산물(샤인머스켓, 방울토마토, 정육 등)을 판매했고, 샤인머스켓과 우렁이 초무침 등 시식 행사를 진행했다.

또한, 화순팍 홍보 부스를 통해 화순팍에서 판매 중인 농특산물(보리굴비, 요거트, 기정떡, 토마토즙 등)을 선보였다.

한 입주민은 "평소에도 화순은 많이 왕래하는 데 이렇게 많은 농특산물이 있는지 몰랐다"라며 "화순의 신선한 농특산물을 집 앞에서 바로 살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구복규 화순군수는 "곳은 날씨에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화순 농특산물에 많은 관심과 홍보 부탁드립니다"라며 "특히,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화순팍에 입점 상품을 늘리고,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홍보 바란다"라고 말했다.

현재 화순팍에서는 9월 27일까지 전상품 20% 할인 쿠폰(최대 3만 원)과 100만 원 이상 구매자에게 10% 추가 할인 쿠폰을 지급하고, 신규회원에게는 1천원 할인 쿠폰을 추가로 지급하는 추석맞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팍 누리집(www.hwasunfarm.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문수 기자

무안군

청정갯벌
무안갯벌낙지

낙지의 고장!
무안을 말하다...

